



Tanilla, 2022. Oil on canvas. 194 x 162 cm. ©2022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Otani Workshop
Hand, Eye, and Soul
Perrotin Dosan Park

November 17 - December 23, 2022

Perrotin Seoul is pleased to announce *Hand, Eye, and Soul*, Otani Workshop's second solo show in Seoul. Following *Children of*, his first exhibition in Seoul in 2018, this show features the most recent and diverse creations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and ceramics.

A seemingly naive spirit infuses the objects and characters of Otani Workshop's world. There is a directness about the forms and figures that he creates, manifesting from clay, recycled wood, metal or paint, transformed by his touch.

At first glance, they promise kawaii, the quality of an obstinate cuteness, especially in his round-cheeked children and baby animals. Then look more closely. Gaze into their eyes—patches of brushstrokes forming circles on the canvas or holes poked into ceramics. Sometimes they radiate youthful joy, sometimes they evoke a worldly sadness. They feel.

오타니 워크숍
Hand, Eye, and Soul
페로탕 도산파크

2022년 11월 17일 - 12월 23일

페로탕 서울은 오타니 워크숍의 두 번째 개인전 « Hand, Eye, and Soul »을 선보인다. 지난 2018년 서울에서의 첫 전시 « Children of »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도예작품 등 다양한 최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오타니 워크숍(Otani Workshop)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오브제와 캐릭터에는 순수함이 깃들여 있다. 작가가 점토, 재활용 목재, 금속, 물감을 변형해 빚어내는 형태와 피규어에는 명쾌함이 있다.

첫눈에는 일본어로 '카와이', 즉 귀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눈에 띈다.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들과 새끼 동물 조각들이 특히 그렇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그들의 눈, 즉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린 동그란 모양이나 도자기에 뚫은 구멍을 지그시 보라. 때로는 친진한 기쁨을 발산하고 때로는 세속의 슬픔을 드러낸다. 감정이 있는 것이다.



Seated monster, 2022. Bronze. 44 × 29 × 34 cm.
©2022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Person from the past, 2022. Ceramic. 40 × 29.5 × 12.5 cm.
©2022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As an artist, Otani has often said that he aims to make work that have in them something “spirit-like.” In Japan’s Shinto religion, something is “yorishiro” when it has the ability to be occupied by a supernatural deity. Though Otani does not think of his art as directly related to Shintoism, his works are infused with the desire that they embody meaning, by existing and in dialogue with the viewer.

“It is my hope that I can exchange some emotions with viewers through my works.”

- Otani Workshop

In this show, Otani presents paintings, sculptures and ceramic vessels. Pottery is fundamental to his practice, and where in many ways his career began. There is a primal feeling in his ceramic figures. They appear to be cute creatures, but then they bear the marks of how they came into being.

The process is making pottery involves alchemy. Humble mud clay gets mixed until it becomes a certain consistency. Then it might rest for a bit as a lump. With the touch of an artist, it begins its journey of transcendence. Often slowly, the lump is kneaded into a form. Otani doesn’t always know what it will become, but in his physical interaction with the clay, eventually a form reveals itself.

He builds his sculptures by hand, patiently adding layers on layers until a shape takes place. Sometimes it becomes a boy, sometimes it becomes a girl, sometimes it is half a horse or a whole dinosaur.

Otani works and reworks the clay until he is satisfied, the surface bearing the marks of his fingers and tools. Sometimes they are covered with colored glaze, other times he keeps them bare to the biscuit. Then they go into a kiln, where further magic happens. You never really completely know what you get after a firing.

오타니는 종종 작가로서 ‘영혼 같은 무언가’가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에서는 초자연적인 신령이 빙의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가리켜 ‘요리시로’라 한다. 비록 작가는 자신의 예술이 신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여기지 않지만, 그의 작품에는 그런 바람이 반영되어 그 자체로 존재하며 또 관객과 대화함으로써 의미를 구현한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감정의 교류를 이루고자 한다.”

- 오타니 워크숍

이번 전시에서 오타니는 회화, 조각, 그리고 도예 작품을 선보인다. 도예는 그의 작업에 핵심적인 요소이자 작가로서 출발점이 된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오타니의 도예 조각은 어딘가 원초적이다. 귀여운 모습을 가졌지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몸체에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

도예 작업에는 연금술이 개입한다. 먼저, 보잘것없는 찰흙이 일정 농도가 되기까지 쉬는다. 그리고 덩어리째 잠시 휴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점토는 작가의 손길을 통해 초월의 여정을 시작한다. 점토 덩어리는 대개 천천히 주물러 빚어지며 형상화된다. 점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항상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점토는 작가와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형태를 스스로 드러낸다.

오타니는 덩어리가 형태를 이룰 때까지 점토를 한 층 한 층 인내하며 쌓아 올려 손으로 조각을 빚는다. 때론 남자아이가, 때론 여자아이가 되며, 또 때론 반마(半馬)나 공룡의 형태가 나타난다.

작가는 만족스러운 형태를 얻을 때까지 점토 작업을 이어가며, 이렇게 탄생한 작품의 표면에는 그의 손가락과 도구 자국이 남아있다. 유색 유약을 입히기도 하고 투박한 모습 그대로 둘 때도 있다. 그 후 가마에 들어가는데, 가마 속에서 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소성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I think I want to make each single touch to establish itself both figuratively and as abstraction."

- Otani Workshop

In recent years, Otani has started showing his paintings as well. These are often lively pictures in pastel hues. Going from one medium to another has informed his art, and he attributes having more colors in his ceramics as coming from his making more paintings in recent years.

Otani was born in the neighborhood of Shigaraki in Shiga Prefecture, a part of Japan known for its rural charm and a town famous for pottery. He attended art school in Okinawa, where he focused on sculptures, mostly in clay.

Otani's works begin in his studio, located in a disused tile factory on the edge of Awajishima, where he toils, mostly by himself. The remote island is wedged between Honshu and Shikoku, in the Seto Inland Sea.

The building is simple but it has all he needs. On his wood shelves he has many books about art, some about his heroes like Giacometti. In the studio, he has bright natural light, high ceilings, space for his kilns, a place to make art. Here he breathes life into his work.

- Alexandra Seno

About the artist

Born in Shiga Prefecture, Japan
Lives and works in Awaji Island, Hyogo Prefecture, Japan

Make no mistake: despite the name, Otani Workshop does not refer to a collective of artists, but to a singular, an eminently singular sculptor who has become the leading representative of Japanese ceramics. Silent and literally bulging heads, figures with their arms raised like praying figures, monumental middle fingers extended upwards, anthropomorphic vases, children, animals, soils, bronzes: Otani Workshop's bestiary is a world in itself, a world in which dreams and tales converge as well as fantasies and daydreams, a world in which the queenly imagination and the kingly gesture triumph, in which forces and forms meet.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

"작품을 거치는 손길 하나하나가 구상적, 또 추상적 의미를 갖게 하고 싶다."

- 오타니 워크숍

오타니는 최근 들어 회화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회화는 대개 파스텔 톤의 생동감 있는 그림이다. 한 매체에서 또 다른 매체로 옮겨 가며 작업한 것이 그의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데, 작가는 그의 도자기에 더 많은 색을 사용하게 된 것 역시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회화 작업의 영향이라 한다.

오타니는 전원 풍경과 도예마을로 유명한 일본의 시가현 시가라키에서 태어났다. 오키나와에서 아트스쿨을 다니며 주로 점토로 만드는 조각 작업에 몰두했다.

작가의 작업은 아와지섬의 끝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에서 시작된다. 과거 타일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작업실에서 그는 주로 혼자 땀 흘리며 애써 작업을 만들어낸다. 아와지섬은 혼슈와 시코쿠 사이의 좁은 바다인 세토 내해에 위치한 외딴섬이다.

작업실 건물은 소박하지만, 오타니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갖춰져 있다. 나무 선반에는 그의 영웅인 자코메티 관련 책을 포함한 수많은 예술 서적이 자리한다. 작업실에는 밝은 자연광이 비치고, 높은 천장과 가마를 놓을 자리와 작품을 만들 공간이 있다. 바로 이곳에서 작가는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일본 시가현 출생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 거주 및 작업

오해하지 말자. '워크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오타니 워크숍은 예술가 단체가 아니다. 일본 도예를 대표하게 된 독보적이고 뛰어난 단 한 명의 작가를 지칭한다. 조용히, 말 그대로 푹 튀어나온 머리를 가진 형상부터 기도하는 듯한 형태로 팔을 든 모형, 커다랗게 위로 뻗은 가운뎃손가락, 인간 형상의 화병, 아이 형상, 동물 모양, 흙과 청동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이르기까지 오타니 워크숍이 빛고 그려내는 우화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꿈과 이야기, 판타지와 몽상이 만나는 세상, 우아한 상상과 위풍당당한 제스처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힘과 형태가 만나는 그런 세상이다.